

<제 646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무등산 수박 1천만원 구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3일 광주 북구청에서 '무등산 수박 살리기 운동' 행사에 동참해 무등산 수박 총 1천만원을 구입했다.

이날 구입행사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무등산 수박 구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의 뜻을 모았다.

금호타이어

◆ 노사 2021년 단체교섭 마무리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지난 26일 광주공장에서는 노사 대표 및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갖고 '21년 단체교섭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일택 대표이사와 김도형 금속노조 광주전남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하여, 사측 대표 위원인 김명선 생산기술본부장, 노측 황용필 대표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양측 대표는 단체교섭 약정서에 최종 서명하고 이를 교환하며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기아 광주공장

◆ 2021년 임협 최종 타결



기아 광주공장(대표이사 최준영, 송호성)은 지난 27일 2021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 인원 2만6945명 중 1만8381명(68.2%-총원대비 64.3%)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합의에서 노사는 '미래 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노사 상생 협약'을 체결해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4차 산업 재편에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고객 종업원의 고용안정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에스존

- 전남매일_21.08.26일자

“지역사회 문제 해결 위해 노력할 것”

사회적기업 (주)에스존 조범준 대표

취약계층 아동 돌봄기관 방역서비스 제공
코로나 확산 방지·사회안전망 구축 앞장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주)에스존 조범준대표가 지역사회 아동돌봄 기관인 '광주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양산사랑오' (이하 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으로 열악한 형편에 놓인 아동 돌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서비스를 실시한다.

조대표는 한국산학협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환경과 오염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위생전문업체

를 구상하게 됐다.

조대표는 “에스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세균과 오염물질을 소독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생활공간을 건강한 위생환경으로 탈바꿈하고,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에스존은 3,500여 종류에 이르는 바퀴벌레를 비롯,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세균까지 일망타진하는 예방서비스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다중시설 환경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조대표는 “위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이나 놀이터 등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에게 있어 매우 위험하다. 코로나19로 위생·방역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돌봄 기관의 아동들은 방역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손으로 만지고 뛰어노는 아이들의 특성상 입이나 코로 개나 고양이 화충, 황색포도상구균이 침입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어른들보다 그 위험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조대표는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번 방역 서비스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돌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대 활동에 힘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기업은 지역민과 더불어 함께 성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감염 방역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II. 광주경총 소식

<광주청년일경험드림-기업형 간담회>



본회 광주청년일경험드림은 지난 24일 2021년 『10기 광주청년일경험드림(Dream)-기업형』에 참여하고 있는 드림터 66개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Online ZOOM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본 사업지침 및 설명회, 근로기준법 및 인사·노무 교육과 ‘광주경총·드림터’ 간 표준협약을 체결했다.

본회는 2019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사업을 시작해 드림터 355개사, 드림청년 610여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이번 10기는 드림청년 110명이 66개 드림터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일 경험에 참여하게 된다.

<중장년센터 제28,29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25,26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28,29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자에게 일 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각각 31,29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사무국 일지 (08.23 ~ 08.27)	
08.24(화) * 광주청년일경험드림-기업형 드림터 간담회 개최	08.26(목) * 광주시 일자리상생재단 관련 회의 참석 * 중장년센터 제29회 생애설계교육 프로그램 운영
08.25(수) * 중장년센터 제28회 생애설계교육 프로그램 운영	08.27(금) * 금요조찬포럼 휴강 (코로나19)

Ⅲ. 노사 및 법제동향

1. 노사 동향

■ 경총은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의결 대해 철회를 촉구

- 민주노총은 8. 23「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2021년 110만 총파업투쟁 결의의 건’을 가결
 - ※ 「임시대의원대회」는 전국 58개 지역 온라인 연결로 진행됐으며, 재적대의원 1,708명 중 1,107명 참석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시기 해고금지, ▲노동법 전면개정 등 총파업 5대 핵심의제를 발표하고 10. 20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
 - 민주노총은 10월 총파업을 중심으로 한 향후 투쟁계획을 수립
 - ※ 민주노총 향후 주요 투쟁 일정 : 대선투쟁 대토론회(9. 1) → 110만 총파업 투쟁(10. 20) → 전국노동자대회(11. 13) → 전국동시다발 연중대회(12. 4, 11) → 민중총궐기 투쟁 및 대선투쟁(2022. 1. 15)

[참고] 민주노총 총파업 5대 핵심의제 주요 내용

- ▲재난시기 해고금지,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 ▲재난 생계소득 지급
- ▲비정규직 철폐 및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 ▲노동법 전면개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국방예산 삭감, 주택·의료·교육·돌봄 강화

- 한편, 경총은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에 대해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사항은 노사간 양보와 협력,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총파업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총파업 선언 철회 촉구 입장 발표(8. 23)
 - 또한,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법원이 7. 3 불법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전국단위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위력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강조

2. 법제 동향

■ 이동주 의원(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18)

- (발의 이유)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 등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등의 경우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납품업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급 및 유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상품보다 빠른 대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
- (주요 내용)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규정

■ 심상정 의원(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18)

- (발의 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을 인증제만으로 규율하는 것은 종사자 보호와 서비스 질 제고 등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배달사업자들 간의 지나친 경쟁 속에 장시간 노동과 과속 등으로 배달노동자들의 생명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서비스 질도 하락하고 있는바 적정 수준의 요금을 보장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배달 기사들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요건을 적용하여 등록제로 하고 그에 따른 의무 부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 안전한 배달을 위한 적절한 배달료를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개정

■ 전재수 의원(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18)

- (발의 이유)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 등에 대해서도 현행법의 보호수단이 제공됨에 따라 중소 기업이 아닌 납품업자 등과 거래하는 유통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 납품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주요 내용)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을 현행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시키고 예외적인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동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 윤준병 의원(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19)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처리 이후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신고 사건의 종류,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사업 및 사업장이 속한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토록 개정

■ 위성곤 의원(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19)

- (발의 이유)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부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등 적용 범위 및 한도 등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하여 그 재원은 국가가 모두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주요 내용)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출산 신고 하는 때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그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개편

■ 이수진 의원(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19)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이사의 임기를 회사의 규모와 무관하게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적어도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주요 내용)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정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19)

- (주요 내용)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인재근 의원(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23)

- (발의 이유)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사업장이 실태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명단만 공표될 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
- (주요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